

# 말단비대증 환자에게 서방형 옥트레오타이드와 란레오타이드 오토젤의 효과 비교

(대한내분비학회지 25:37-45, 2010, 김설영외 1인)

안유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 Comparison of the Efficacy of Octreotide Long-acting Repeatable and Lanreotide Autogel in Acromegalic Patients (*J Korean Endocr Soc* 25:37-45, 2010)

Yu-Bae Ahn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말단비대증은 성장호르몬의 과다분비로 인하여 심혈관계나 호흡기계의 합병증과 악성 종양의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만성 질환입니다. 말단비대증 환자에서 사망률 및 이환율의 증가는 혈중 성장호르몬 및 IGF-1 농도의 상승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따라서 수술적 방법을 통하여 뇌하수체 선종을 제거하는 것이 일차적인 치료로 알려져 있지만 거대선종의 경우 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6-68%로 완치율이 높지 않고 수술 후 재발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 환자에서 지속형 소마토스타틴 유사체와 같은 추가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한내분비학회지 25권 1호에 김 등은 후향적 연구이기는 하지만 3년 동안 단일 병원에서 경험한 말단비대증 환자를 정리하고, 두 가지 소마토스타틴 유사체 약물치료에 대한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향후 말단비대증 환자의 약물치료에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연구 결과는 국외에서의 보고와 크게 차이는 없으나 연구 방법 및 결과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본 연구에서 3개월 이상의 약물치료에도 성장호르몬이나 IGF-1 농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방사선 치료를 병행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마토스타틴 유사체를 투여한 환자에서 50% 이상이 약물에 반응이 없어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일부 국내외 연구 [1,2]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어떠한 이유인지 궁금하며 서방형 옥트레오타이드와 란레오타이드 오토젤 중 어느 약제에서 실패율이 높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어 추가로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군에서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마토스타틴 유사체만 투여한 군과 마찬가지로

성장호르몬 및 IGF-1 평균 수치가 감소하는데 약제에 대한 지연성 반응(delayed response) 혹은 방사선 치료 효과인지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소마토스타틴 유사체 투여 후 대부분의 환자에서 25% 정도 선종의 크기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하였습니다[3]. 본 연구에서도 약물 투여 전후로 추적 뇌하수체 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하여 약물치료 전후로 뇌하수체 선종의 크기 변화를 측정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소마토스타틴 유사체의 투여는 소화기계 증상이나 주사 부위의 결절과 같은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고 말단비대증 환자에서는 정상인에서와 달리 성장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여 내당능의 개선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4]. 본 연구에서도 대상 환자 중에서 약물 투여 후 부작용의 발생 유무 및 종류와 처음부터 당뇨가 있는 환자의 경우 소마토스타틴 유사체 사용 후 혈당 조절에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후향적 연구이고 대상 환자 수가 적지만 약물에 반응이 없는 환자를 제외하고 분석을 하였더라면 두 약제를 비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좋은 연구를 수행하시고 발표하신 저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참고문헌

1. Mercado M, Borges F, Bouterfa H, Chang TC, Chervin A, Farrall AJ, Patocs A, Petersenn S, Podoba J, Safari M, Wardlaw J; SMS995B2401 Study Group: A prospective, multicentre study to investigate the efficacy, safety and tolerability of octreotide LAR (long-acting repeatable octreotide) in the primary therapy of patients with acromegaly. *Clin Endocrinol (Oxf)* 66:859-868, 2007
2. Kim JY, Jee JH, Yoon CH, Chung YJ, Lee BY, Cho GY, Kim SY, Chung JH, Min

- YK, Lee MS, Lee MK, Kim KW: Efficacy of octreotide LAR in acromegalic patients. *J Korean Soc Endocrinol* 20:344-352, 2005
3. Colao A, Pivonello R, Auriemma RS, Briganti F, Galdiero M, Tortora F, Caranci F, Cirillo S, Lombardi G: Predictors of tumor shrinkage after primary therapy with somatostatin analogs in acromegaly: a prospective study in 99 patients. *J Clin Endocrinol Metab* 91:2112-2118, 2006
4. Andries M, Glibtorg D, Kvistborg A, Hagen C, Andersen M: A 12-month randomized crossover study on the effects of lanreotide Autogel and octreotide long-acting repeatable on GH and IGF-I in patients with acromegaly. *Clin Endocrinol (Oxf)* 68:473-480, 2008